



## 주님 세례 축일

**제1독서** 이사 42,1-4.6-7

**회답송** 시편 29(28),1ㄱ과 2,3ㄱ과 4,3ㄴ과 9ㄴ-10(◎) 11ㄴ)

- ◎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 하느님의 아들들아, 주님께 드려라. 그 이름의 영광 주님께 드려라. 거룩한 차림으로 주님께 경배하라. ◎
- 주님의 소리 물 위에 머무네. 주님이 넓은 물 위에 계시네. 주님의 소리는 힘차고, 주님의 소리는 장엄도 하네. ◎
- 영광의 하느님 천둥 치시네. 그분의 성전에서 모두 외치네. “영광이여!” 주님이 큰 물 위에 앉아 계시네. 주님이 영원한 임금으로 앉으셨네. ◎

**제2독서** 사도 10,34-38

**복음 환호송** 마르 9,7 참조

- ◎ 알렐루야.
-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

**복음** 마태 3,13-17

**영성체송** 요한 1,32,34 참조

**보라, 요한이 말하였다. 나는 보았다. 그래서 이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증언하였다.**

### 순교 사적지 양주 순교 성지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399번길 62

관할

양주 순교 성지 031-841-1866

의정부교구 설립 뒤에 새롭게 찾아낸 병인박해의 순교터로서 성역화를 진행하고 있는 성지이다.

병인박해 순교자들에 대한 기록인 “치명일기”에 양주관아에 붙잡혀 와 순교한 다섯 분이 수록되어 있다. 용인에서 붙잡혀 온 김윤호 요한과 권 마르타 부부, 김 마리아와 양주 일당리 출신인 홍성원 아우구스티노, 면천 출신인 박 서방이 이곳에서 순교한 분들이다. 양주 출신인 홍성원은 아버지(홍몽로)와 두 형제(홍성국, 홍선선)가 각각 다른 곳에서 순교했고, 박 서방의 아들 부부는 홍주에서 순교했다.

이 순교터는 60여 년 전 ‘순교터’라고 새겨진 표지석이 있던 자리를 증언을 통해 확인하고 찾아낸 자리이다. 이후 토지매입을 진행하고, 2016년 5월 28일에 이기현 교구장의 주례로 성지선포 미사를 봉헌했다.

주변에는 양주목관아, 양주향교, 별산대놀이 공연장 등을 둘러볼 수 있다.

# 세례는 하늘의 면허



미카엘 자와하르 신부  
용현동 부주임

“그때 그분께 하늘이 열렸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당신 위로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마태 3, 16-17)

주님의 세례는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드러낸 사건입니다. 동시에 주님의 세례는 죽으심과 부활로 새 세상이 열리는 신비의 예고이며,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활을 시작하심을 알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세례의 본질은 죄를 끊고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데 있는데,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모든 의로움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로 가득 찬 당신 백성들을 자비와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당신 자녀로 받아들여주시기 위한 의로움일 것입니다.

사실 하느님의 용서와 자비가 없다면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는 자격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 세례는 우리에게 하늘의 면허를 얻을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죄를 용서받고 하느님의 자녀가 됩니다.

또한 세례를 받음으로써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고 교회의 지체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세례 성사의 은총으로 하느님의 사랑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우리는 늘 감사와 겸손한 마음으로 이 은총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례성사의 은총이 우리의 운명을 밝은 쪽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세례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새롭게 되었고 생명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주님세례축일을 맞이하면서 세례 때의 은총을 기억하며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를 것을 다짐해 봅니다.

다시 한 번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새로운 삶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



## 서적을 통해 학문으로 시작된 신앙

홍유한고택지, 우곡성지 · 홍유한(1726~1785)

조선은 철저한 쇄국정책으로 모든 선교사들의 입국 시도가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16세기 말에 일본과 중국에는 이미 천주교가 전해져 있었기 때문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통해 천주교와 접촉이 있었지만 조선 내 교회 공동체가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중국에 사신으로 갔던 이들이 새로운 책과 물건들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한자로 번역된 서양의 책들과 함께 천주교 서적도 함께 들어왔고, 서양 선교사들을 만나 대화를 나눈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들어온 책을 통해 천주교를 접한 유학자들 대부분은 놀라워하면서도 그 내용을 비판하거나 무시하거나 배척하였습니다.

그 중 성호 이익의 제자들은 남다르게 적극적으로 천주교를 학문으로 수용했고, 더 나아가 이를 신앙으로까지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사람이 홍유한(1726~1785)입니다. 그는 물론 받는 세례성사를 받지 못했지만, 한국교회사를 쓴 달레 신부님은 화세를 받았을 것이라고 했으니, 최초의 신자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홍유한은 이익의 문하에서 채제공, 안정복, 권철신, 이기양 등과 교류하며 지내다가 1757년에 충청도 예산으로 이사하고, 1775년에 경북 영주로 다시 이주했습니다. 현재 단산면 구구리에 있는 “홍유한 고택지”가 바로 그가 1785년, 죽을 때까지 살던 곳입니다.

홍유한은 그곳에서 학문을 통해 깨달은 바를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축일표나 기도서가 없었지만, 7일마다 쉬면서 기도에 전념하며 주일을 지냈습니다. 나이가 30세 이후에는 정절의 덕을 실천했고, 금육일을 정확히 알지 못해 항상 좋은 음식은 먹지 않는 것을 규칙으로 삼고 지켰습니다.

10년간의 철저한 수계 생활을 하다가 1785년 1월에 60세로 세상을 떠난 홍유한.

그가 묻힌 곳이 “우곡 성지”가 되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



## 장례식에서 금세 돌아온 사람처럼 보이지 맙시다

얼마 전 아침 일찍 막내를 데리고 외출할 일이 있어서, 남편이 출근길에 나랑 막내를 데려다주기로 했다. 남편 지각할까봐 부랴부랴 준비해서 차를 타고 가는 중에 나는 그만 빠뜨린 물건이 생각나버렸고, “아 맞다!” 탄식하자마자 “빨리 말해!” 하는 남편의 다급한 대답이 돌아왔다. 지금껏 들어보지 못한 통명스러운 말에 나는 엉엉 울음이 터졌다. 집으로 유턴할지 직진할지 빨리 결정해야 해서 그랬다고 남편은 해명했지만 서러움의 눈물은 쉬 멈추지 않았다. 한참 울고 난 뒤에 아이들이 떠올랐다. 이 정도의 말에 이렇게 눈물이 난다면 우리 아이들 얼굴에선 눈물 마를 날이 없어야 했다. 새삼, 아이들은 얼마나 관대한가.

나는 하루에 적어도 서너 번, 아이들에게 고함을 지른다. “얼른 정리해!” “장난치지 말고 밥 먹어!” “치 카치카하게 빨리 와!” 소리 질러도 안 통하면 목소리를 낮게 깔고 노려본다. 호랑이 교관이 따로 없다. 애들에게 화를 내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결국은 내가 거부당했다는 느낌이 들어서다. 기껏 차려낸 밥을 안 먹을 때, 시키는 일을 하지 않을 때면 나도 모르게 ‘네가 감히?’ 하는 생각이 드는 거다. 겉으로 훈육인 척하고 있지만 실은 무시당했다는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다. 그리고 더 깊이 파고 들어가자면, 내가 아이들보다 우월한 존재라는 인식, 서열상 위에 있다는 교만함에서 비롯된 게 아닐까 싶다. 아이들이 내가 섬겨야 할 존재라는 걸 깨달았으면 우리 아이들은 지금쯤 자애롭고 유쾌한 엄마랑 살고 있었을 거다.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란 명량한 사람이다. 만사에 느긋하고 표정은 편안한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쾌활한 말투로 이야기하는 사람. 명량함은 남을 깔보지 않고 존중할 때만 나온다. 내가 남들보다 위에 있다고 여기는 순간 그건 더 이상 명량이 아니라 시혜적인 친절이 될 것이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권고를 담은 책 <복음의 기쁨>에서 가장 인상적인 구절은 이 문장이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장례식에서 금세 돌아온 사람처럼 보이지 맙시다.” 침울한 표정을 하고 툭하면 화를 내는 나를 보면서 아이들이 자비를 배울 수 있었을까? 엄마가 아무리 식탁에서 복음을 읽어준다 한들 밥 제대로 안 먹는다고 짜증을 낸다면 아이들이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가끔 첫째가 “엄마 무슨 일 있어?” 물어보거나, 둘째가 “(얼굴을 찡그리며) 엄마 이렇게 하지만! (싱긋 웃으며)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다그칠 때, 나는 다시금 교황님의 권고를 떠올린다. 내가 또 방금 장례식 다녀온 사람처럼 하고 있었구나. 내가 뭐라고 이 아이들에게 화를 내나, 이 귀한 아이들에게. 하느님이 먼저 우리 사랑하셨음을 언제나 잊지 말자. 그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기뻐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

### 정신후 블라시아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작가, 정발산 성당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했고 본당 청년과 결혼하여 세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

김승연 프란치스코 신부  
구리 부주임

##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지난주에 살펴보았듯 구약의 하느님께서서는 모세와 예언자들을 통해 당신께서 인간 고통에 무관심한 분이 아니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통 중에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류 역사에 결정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이 되시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인간의 언어와 행동으로 하느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과 마주한 예수님의 태도에 주목해야 합니다.

### 연민

마르타와 마리아의 오빠였던 라자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슬픔에 공감하시어 슬피 우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실 때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라고 여러 차례 기술합니다(마태 9,36; 20,34; 마르 1,41; 루카 7,13). 그러니 예수님께서서는 고통에 처한 사람을 보실 때 연민의 마음을 지니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 기적

고통받는 이들에 대해 연민의 마음을 지니셨던 예수님께서서는 그 고통을 직접 해결해주시기도 하십니다. 기적을 통해서 말입니다.

### 동참과 연대

사실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육화가 놀라운 까닭은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 고통에 직접 동참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되시어 우리 인간의 굴레에 동참하셨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으시고 죄 없으신 분께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감내하셨으며 결국 십자가상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인간 고통의 한 가운데에 직접 뛰어드시어 인간과 연대하셨던 것입니다.

### 고통에 대한 하느님의 대답 : 예수 그리스도

결국, 고통에 대한 하느님의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당연히 그분의 모범을 따라야 합니다. 그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 고통받는 이들을 보며 연민을 지녀야 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간 고통에 동참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타인의 고통에 동참해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고통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세상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라고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

## 2020년 청소년사목국 청소년부 일정

날짜	내용	장소
2/8(토)	신입교사학교(2과정)	신앙교육원 / 교구청 회의실
3/6(금)~7(토)	교육부 워크숍	서울 마리스타교육관
2/15(토)(1차) 3/1(일)(2차)	교감단연수 *주일학교 공통(차수 중 1회 선택하여 참석)	신앙교육원
7/4(토)	(테마2)캠프준비교육2-여름레크&전례	신앙교육원 / 교구청 회의실
7/12(일)	10년 근속 교리교사 시상 *주일학교 공통	주교좌 의정부 성당
8/28(금)~30(일)	신입교사학교(1과정)	한마음수련원 생활관
12월~다음 년도 1월	교재연구팀 워크샵	미정

\* 기본양성교육 일정은 추후 공지됩니다.

\* 의정부교구 청소년부 교육부에서 함께 할 교육부 선생님을 기다립니다.

### 1. 자격 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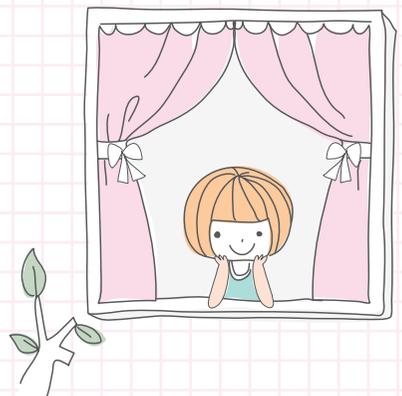
- 1) 교사 경력 2년차 이상      2) 신입교사학교 수료
- 3) 양성교육 2학기 이상 참여    \*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교사로 현임, 퇴임 교사 모두 가능

### 2. 지원 방법

- 1) 본당 담당 신부님께 교육부 지원 의사 상의
- 2) 청소년사목국 메일로 지원 의사 전달(확인 후 신청서 보내드립니다.)
- 3) 청소년사목국 담당 신부님 면담 후 확정

3. 접수 기간 : 2월 29일(토)까지

4. 문의 : 850-1459 / youth@uca.or.kr



## 신비 안에 살다 (3)

### 음악 이야기

최대한 세례자 요한 신부

가톨릭대학교성신교정 교수

대림의 시작에서 주님 공현 후 주간에 이르는 전례독서를 통해 만나는 여러 인물들은 신비 안에 살아가는 길의 모범입니다. 성탄 이야기에 나오는 성모님, 요셉, 엘리사벳, 즈카르야, 동방박사들을 떠올리고 묵상하다보면 신비 안에 살아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한 내적인 태도들은 무엇인지 조금씩 감지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성전봉헌 이야기에 등장하는 노인 시메온 역시 신비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지닌 마음과 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내와 희망 속에 평생을 조용하면서도 힘있게 메시아를 기다려온 시메온은 마침내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납니다. 이때 시메온이 노래하는 기쁨과 감사의 기도를 교회에서는 <시메온의 노래>라 부르며 매일 성무일도의 끝기도에 바칩니다. (루카 2,29-32)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주님의 종을 평안히 떠나가게 하소서.  
만민 앞에 마련하신 주님의 구원을  
이미 제 눈으로 보았나이다.  
이교 백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시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되시는 구원을 보았나이다.”

시메온의 노래를 하루를 닫는 끝기도의 마지막에 바치는 이유는 이 기도가 은총 속에서 죽음을 받아들이는 신앙인의 자세를 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찬

가를 바치며 기도자는 잠드는 것을 ‘작은 죽음’으로 삼아 그 날을 주님께 온전히 봉헌하고 자신의 삶과 화해를 하게 됩니다. 시메온의 노래를 통해 우리는 신비를 살아가는 것은 죽음을 자신의 삶에서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담아내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죽음을 외면하거나 거부하지 않는 태도는 삶을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이자, 내면에서 생명을 긍정하고 감사하는 태도라 하겠습니다.

죽음을 자신의 삶에 통합하면서 신비 안에 살기 위해서는, 인생살이에서 겪게 되는 이별과 포기과 상실들에서 아픔과 아쉬움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떠나보내는’ 지혜를 익혀야 할 것입니다. 시메온의 노래는 그 길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시메온의 노래는 라틴어로 불가타 성서번역의 앞 구절을 따서 ‘눈크 디멘티스(nunc dimenttis, 이제 떠나가게 하셨습니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노래에 곡을 붙인 조출하며 아름다운 곡들이 많은데요, 우리시대의 가장 영적인 작곡가 아르보 페르트 역시 이 ‘눈크 디멘티스’를 작곡했습니다. 성탄 주간을 마무리하면서 이 곡을 들읍시다. 죽음을 생각하며 신비 속에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을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

YOUTUBE로 보기



작곡: 아르보 페르트(Arvo Pärt)  
'눈크 디멘티스(nunc dimenttis)'  
/ 슈투트가르트 SWR-보컬앙상블



**교구장 동정**

1월	15(수)	13:30	복사전례학교 수료미사 - 한마음수련원 본관
	18()	10:30	설맞이 이산가족 위령미사 & 묵주기도 - 참회와 속죄의 성당



**교구  
소식**

**2020년 설맞이 이산가족 위령 미사**

일시 1/18(토) 10:30 통일기원 묵주기도, 11시 미사      장소 참회와 속죄의 성당  
 대상 민족화해에 관심이 있는 사제, 수도자, 신자      주례 의정부교구장 이기현 주교  
 주관 민족화해위원회 031-941-6235~6      공동집전 의정부교구 사제단

**의정부교구 법원 공시**

아래 공시된 분은 1월 20일(월)까지 교구 법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혼인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성명 유성철 호영베드로      문의 031-850-1507(주말, 공휴일 휴무)

**1월 25일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기원하는 토요일기도회 없습니다.**

오는 1월 25일에는 설합동위령미사 관계로 참회와 속죄의 성당에서 열리는 토요일기도회가 없습니다.

**신앙교육원 신입생 모집 / 의정부 본원, 오후반**

수업 매주 화,목 14시~16:10 2년제 4학기 / 매학기 4과목 15주간 수업  
 과목 성경 6과목, 교리 10과목      등록금 학기별 35만 원 /문의 031-850-1546

**제19차 의정부 가톨릭약혼자주말**

이해, 일치, 사랑을 위한 의사소통 프로그램      대상 예비 부부, 혼인 5년 미만의 부부  
 일시 2/28(금) 19시~3/1(주일) 17시      장소 위로의 성모 수녀원(성북동)  
 문의 가정사목부 031-850-1448      <http://cafe.naver.com/ujbee>

**임진강을 따라 걷는 2020 DMZ 평화의 길(파주-연천 구간)**

기간 3/26(목)~29(일), 3박4일      대상 초6학년 이상 누구나 (총100명, 선착순 마감)  
 참가비 15만 원      문의 031-941-2766 [www.pu2046.kr](http://www.pu2046.kr)  
 주최 민족화해위원회      주관 민족화해센터

**최대한 신부와 함께하는 젊은이를 위한 인문학 피정**

일시 2/15(토) 15시~16(일) 13시      장소 한마음수련원 피정동  
 대상 19세~39세(기혼자 포함)      인원 선착순 40명  
 피정비 4만 원(교재\_개인 구입)      교재 대화에 대하여(시어도어 쉐넌 지음), 어크로스  
 준비물 개인 컵, 필기류, 세면도구, 따뜻한 옷      문의 031-850-1446 선교사목국

**■ 하늘님의 집 후원 현황(12월말 기준)**

전월잔액				3,326,159,653원	
12월 후원	사제와 개인	본당 입금	기타(미사예물 외)	교구 부서	합계
	9,210,000원	144,459,310원	447,303,498원	5,100,000원	606,072,808원
비 고	※ 이기현 주교님: 15,000,000원, 박 카타리나: 500,000,000원, 익명: 100,000,000원 이정훈 신부 부친상 부의금: 30,000,000원, 김경진 신부 모친상 부의금: 30,630,000원, 익명: 10,000,000원				
월말누적잔액				3,932,232,461원	



## 미사 · 피정 ▶▶

### 교구 성령기도회 철야: 성숙한 신앙의 여정

일시: 매주(금) 21:10~01:20 마두동 성당(1/17)  
주제: 제 6주 향주삼덕을 통한 성장  
강사: 이상윤 도미니코 사비오 신부(부산교구)  
문의: 010-8729-0025 성령기도회

### 3.4지구 성령기도회 밝기도

일시: 1/15(수) 19:30~21:40  
강사: 박장화 헤레나(말씀과 축복기도)  
장소: 의정부1동 성당 010-3790-0496

### 매듭을 푸시는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와 묵상 피정

일시: 매주(화) /일정: 10시 기도와 묵상,  
11시 강의, 14시 미사, 점심제공  
장소: 파티마명화의 성당 031-952-6324

### 신·구약 성경 완독 피정 (8박9일)

2/14(금)~22(토), 4/17(금)~25(토)  
문의: 010-3340-0201 황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

### 예수마음기도명성수련 (권민자 수녀)

1박2일: 2/29~3.1 /3.14~15  
3박4일: 2/7~10(45세 미만 미혼), 2/22~25  
8박9일: 1/28~2/5(신학생), 2/12~20  
40일: 4/14~5/22, 6/16~7/25  
신청: 010-4906-5722, (031)953-6932  
장소: 문산 예수마음피정의 집

### 예수회 후원회 월례특강

주제/강사: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요한 4,15) - 영적 갈망의 이해 / 심종혁 신부  
일시: 1/20(월) 13:30~16:30  
장소: 마두동성당 4층 소성전(고양시 일산  
동구 일산로 254)  
문의: 010-5054-4470 /무료, 미사봉헌

### 제주면형의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도회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역사.평화 순례,  
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오름 트레킹  
(모든일정은 왕복항공 포함해서 접수가 가능)  
기간: 1/17~19(한라산), 2/1~3(한라산),  
2/7~9(한라산), 2/13~15, 2/22~24(한라산),  
2/28~3/1(한라산)  
접수: 02-773-1463, 064-756-6009

### 살레시오회 겨울 성소 대피정

대상: 예비 고3·성인 일반 (만 33세 이하)  
기간: 1/31(금)~2/2(일)  
장소: 돈보스코청소년센터(서울여의대방로65)  
문의: 010-5159-3949, 010-3894-1332

###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

내용: 유기농 4종 효소의 기본영양 공급으로  
부작용이나 공복감 없이 효소단식으로 독  
소, 노폐물, 체지방 등을 디톡스하면서 성체  
신심 세미나를 통해 성체안에 살아계신 예수  
님 현존의 은혜를 재발견할 수 있는 프로그  
램이며 영육간에 자연치유력 회복을 목적으  
로 하는 피정 /일시: 1/31(금)~2/3(월),  
2/28(금)~3/2(월), 3/20(금)~23(월)  
피정지도: 토마스 신부(본원)  
장소: 성도미니코수도원(수유동)  
피정비: 36만 원(효소비 포함)  
문의: 010-9363-7784(신 글라라)

### 예수회 후원회 월례특강

주제/강사: 무너진 마음에 꽃이 필 때 / 강연덕 신부  
일시/장소: 1/15(수) 13:30~16:30 /예수회센터  
문의: 02-3276-7777 /무료, 미사봉헌

### 예수회 후원회 금요침묵피정

주제/강사: 상한 마음의 치유- 분노 다스리기  
/최준열 신부 /일시: 1/17(금) 10시~13시  
장소: 예수회센터(서울 마포구 서강대길 19)  
문의: 02-3276-7777/무료, 미사봉헌

### [성심교육관] 신년설계, 2박3일 무료치유대피정

일시: 1/17(금) 22시~19(일) 15시  
장소: 성심교육관 031-262-7600  
수도자와 함께하는 수요묵주 100단 기도회  
매주(수) 19:30~익일 12:30(미사)



## 교육 · 모집 ▶▶

### <나무그늘> 사진 공모

소소한 나의 일상을 보내 주세요!  
“기억하고 싶은 사람과 순간 /이야기가 있는  
묵주 /나의 기도공간”  
채택된 작품은 <나무그늘>에 실어 드리고,  
소정의 선물을 보내 드립니다.  
※ 보내실 때 본당, 이름(세례명), 주소, 연락  
처를 꼭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031-850-1447, samok@uca.or.kr

### CPE(임상사목교육) 2020년 봄 학생모집

대상: 위기에 처한 이웃과 자신을 위해서 영  
적돌봄 훈련을 원하시는 분  
정원: 선착순 8명 / 교육비: 80만 원  
기간: 2/29~6/20, 매주(토) 16주간  
장소: 주엽동 성당 /문의: CPE Supervisor  
고종향 신부 010-2235-2117

### 중산 성당 관리인(3교대 근무) 모집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본당신  
부 추천서 /자격: 만 60세 이상, 보통1종 면  
허, 전기안전관리 자격증(우대)  
마감: 1월 말까지 (면접 개별통보 /제출서류  
반환불가) /문의: 031-975-3333

### <나무그늘> 문화의 트랙을 여러분의 글로 꾸며주세요

<문화의 트랙>에서는 ‘성지순례’를 주제로 한  
교우 여러분의 글을 모집합니다. 복음안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순례이야기들을 보내주세  
요. 채택되신 원고는 <문화의 트랙> 코너에  
소개되며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분량: 10포인트 A4용지 1장  
보내실 때 본당, 이름(세례명), 주소, 연락처  
를 꼭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031-850-1447,  
이메일: samok@uca.or.kr(이메일만 접수)

###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 신학과정

대상: 가톨릭 수도자 및 평신도(만 18세 이상,  
학력제한 없음) /내용: 가톨릭 신학 26과목  
원서접수: ~2/7(금)까지(우편신청가능)  
문의: 02-745-8339,  
홈페이지: ci.catholic.ac.kr(원서다운가능)

### <환경농촌사목위원회> 두루미 생명평화기행

민통선 내 멸종위기에 처한 두루미 등 겨울  
철새를 통해 생태의 소중함,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나눕니다.  
지역 주상절리 및 유적지 탐방 포함  
일시: 2/8(토) 9시~18시  
장소: 임진강 유역 파주, 연천 일대  
회비: 1인 2만 원(선착순 40명 모집)  
문의: 환경농촌사목위원회 031-850-1492

### 바다의별 청소년 수련원 여름신앙학교

접수: 2/7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접수  
홈페이지: www.mare.or.kr  
문의: 032-932-6318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 로사리오 기숙생 모집

대상: 여대생(로사리오 성모의 도미니코 수녀회)  
위치: 서울 성북구 성북로 31길5-16  
문의: 02-741-3071/ 010-7740-3071

###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학생모집

문의: 02-828-3600 /대상: 15~30남  
내용: 기계가공, CAD/CAM, 인성교육  
기간: 20.3월~12월(2월예비학교)  
혜택-교육비전액무료,수당지급  
-취업(최근5년평균취업률93.3%)

### 김웅열 신부와 함께 하는 찬양 치유 대피정

일정: 1/16 10:30~17시  
 장소: 지혜의 샘(북방선교 기도공동체)  
 부천시 송내동 366-5 지혜의 샘 5층  
 점심 무료 제공, 찬양 축제 파견 미사  
 강사: 김웅열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진행: 고영민 자문과 "셀라 민족들의 빛"  
 032-343-1871 / 010-3248-9705

### 수사신부님들과 함께하는 노인요양원 입소자모집

대상: 장기요양1~5등급(시설급여)을 받으신 분  
 운영: 마리아의 아들 수도회  
 문의: 033-458-9422(문피노인요양원)

### 커피바리스타교육 (사)하랑/가톨릭바리스타협회

주 1회 12주 교육과정: 에스프레소, 라떼아트, 홈바리스타, 창업, 로스팅, 자격증  
 문의: 010-9040-8306, 010-2511-6845  
<http://club.catholic.or.kr/barista>

### 가톨릭교리신학원 신입생모집 ci.catholic.ac.kr

가톨릭신학의 체계적 교육  
 <교리교육학과(주간) · 종교교육학과(야간)>  
 2년 과정, 선교사자격증 수여  
 만70세미만, 세례 3년이상 견진자, 고졸 이상  
 <신학심화과정> 1년 과정, 화~목요일 수업  
 본원 교리·종교학과·통신과정 졸업생  
 만70세미만, 고졸 이상  
 1/21(화)까지 접수, 02-747-8501

### 티없으신 마리아 성심 재속3회 지원자 모집

첫모임: 1/18(토) 9:30, 파티마 평화의 성당  
 대상: 성모님 안에서 봉헌생활을 원하는 55세 이하 신자 /준비물: 교적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증명사진  
 문의: 010-6711-4819 (양성담당)

### 전진상교육관

전·진·상 영성심리상담소 (02-726-0700)  
 자아의 통합과 영성(목요일): 3/5~6/18, 10시~12시 /그룹훈련: 13시~15시(신청별도)  
 자아의 통합과 영성(토요일): 3/7~6/20, 10시~12시 /그룹훈련: 13시~15시(신청별도)  
 성장하는 부모를 위한 아주 특별한 시간(심리학적 이해) 3/6~3/27 매주(금) 10시~1시

### 예수회센터 영성강좌 (3월 개강)

파스카의 신비- 십자가와 부활의 영성<신설>  
 매주(화) 14시~16시, 김미정 수녀  
 영성과 철학상담-아픈 영혼을 '철학'으로 치유하기  
 (화) 19시~21시, 박병준 신부, 홍경자 박사  
 영성의 향기: 근대 영성의 거장들  
 첫째, 셋째(수) 10시~12시, 심중혁 신부  
 가톨릭 사회교리  
 매주(수) 10시~12시, 전주희 수사  
 신청: 02-3276-7733, <http://center.jesuits.kr/>  
**의정부지구 재속프란치스코회 지원자 모집(2/29 마감)**  
 자격: 견진성사 받은 만 17세 이상~만 55세 미만, 가톨릭신자, 성 프란치스코의 영성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 다른 수도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사람  
 문의: 오경순엘리사벳 010-8830-2250  
 유프라(17~32세의 미혼 청년 프란치스코)  
 지원문의: 강왕수 가스팔 010-4704-2469  
**상장례지도사(봉사자, 국가자격취득) 교육생 모집**  
 1) 봉사자 과정 (10주)  
 일시: 3/14~5/23, 매주(토) 09시~18시  
 2) 국가자격취득 과정 (300시간)  
 일시: 3/14~11/14, 매주(토) 09시~18시  
 장소: 교구청 내 신앙교육원 /대회의실  
<http://cafe.daum.net/sangjang2014> 게시판 참고  
 문의: 031-874-6272 /팩스: 031-837-0144

### 안내 · 기타 ▶▶

### 의정부성모병원어린이집 보육교사 모집

보육교사(유치원교사)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접수: 1/2~1/31, E-mail로만 접수  
 채용지원서: 의정부육아종합지원센터 구인난 참고 /문의: 031-820-3381

### 노인공동생활가정 바오로성모의집 이용자접수

대상: 일상생활이 가능한신 (여성분)  
 주소: 고양시 덕양구 중곡개길 98번지  
 샬트르성바오로수녀원 운영(설립25주년)  
 담당: 02-381-7510, 010-7353-6716 윤행희 데레사 수녀

###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국내입양상담 및 입양 전까지 사랑으로 돌볼 위탁부모를 모집합니다.  
 문의: 02-764-4741~3, [www.holyfcar.or.kr](http://www.holyfcar.or.kr)

### 가톨릭여행사 (문의: 010-5235-3533)

4/20 이스라엘 이탈리아 12일 415만 원  
 4/20 유럽4개국 성모발현지 12일 375만원  
 4/21 이스라엘 요르단 11일 425만 원  
 5/18 터키 그리스 12일 385만 원

###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02-2281-9070

2/15 이탈리아 프랑스 11일 420만원  
 2/28 유럽 성모발현지 13일 375만 원  
 3/9 발칸반도(메주고리에) 12일 355만 원  
 3/12 이스라엘 일주 9일 375만 원  
 3/15 서부지중해 크루즈 10일 399만 원~

### 라파엘여행사02-778-8565

이스라엘, 요르단 10일 3/27 4/20 289만원  
 이스라엘 9일 3/30 299만원  
 이태리 일주 9일 3/12 279만원  
 스페인 포르투갈 10일 3/4 299만원

### 산티아고 순례길 800KM <41일>

루르드/파티마 성지순례 일정  
 4/3 449만 원 / 가톨릭 트래블  
 070-4086-0207 /catravel.co.kr

### 제주성지순례 3일

일시: 2/26~28, 3/20~22, 3/24~26, 4/3~5 /장소: 제주성지7곳(성지해설)  
 문의: 064-805-9890  
 해외순례: 4/16 다낭성지순례5일  
 순례자를 위한 제주 렌터카&숙박 예약가능

### 제주도 관광안내

제주운전기사사도회에서는가족,효도,단체 관광및성지안내차량,호텔,팬션,골프예약가능  
 문의: 064-758-6476, 010-4566-6476

### 한국 예수회 후원회 성지순례

2/13 베트남 성모성지(다낭) 5일 160만 원  
 3/23 터키. 그리스 12일 370만 원  
 4/13 이태리 일주 12일 370만 원  
 5/25 베트남 성모성지(다낭) 5일 130만 원  
 문의: 02-722-8366(크로바여행사)

	수도회명	일시	장소	문의
성 소 모 임	성 빈센트 드 볼 자비의 수녀회	수시 상담 가능	본원 (빈센트병원 뒤)	010-8833-8107
	스승예의수제자수녀회	1/19(주일) 13:30~ 16:30	스승예의수제자수녀회(미아리본원)	010-9816-0072
	천주의 성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1/18(토) 14시	개화동 수도원(서울)	010-3800-1579

## 07 영성의 향기

## 임마누엘

김동규 바오로 신부  
가톨릭대학교성신교정 교수

개신교에 잠깐 다녔던 어린 시절, 성경말씀을 배우고 암기하며 기도를 훈련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개신교에서 말씀 중심으로 체험되어 자라나는 굳건한 믿음은 자발적이고 열정적인 선행과 봉사, 계명 실천의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가톨릭교회에서는 세례 받기 전에 교회 공동체의 제도, 관습, 계명과 교리, 복음 말씀, 전례와 성사들을 우선 머리로 이해하는 예비자 교리를 배우며 신앙에 입문하게 됩니다. 개신교가 말씀에 집중되어 있다면, 가톨릭은 풍부한 신앙의 유산(fidei depositum)과 교회 공동체의 여러 모습(에버리 델레스의 「교회의 모델」 참조) 안에서 익히고 체험해야 할 것들이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많은 신앙교의와 교리들을 단기간에 습득하고 세례를 받은 후 얼마 되지 않아, 곧바로 본당 공동체로부터 ‘평신도 사제직, 예언지, 왕직’ (『교회헌장』 34-36항 참조)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요청받습니다. “일단 봉사하면서 다 배우는 거야, 나도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어.” 이 말은 자발적인 본당 봉사자가 줄어드는 오늘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과 “친밀한 관계”로 지내는 것과, “하느님의 일을 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신학자 에간(Harvey D. Egan)이 말한 것처럼, 믿음과 기도 체험 없는 봉사는 “내가 ~한 뜻을 가지고 ~한 노력을 한다면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경험주의적 시각을 갖게 합니다. 하지만 신앙은 ‘성과주의’가 아닙니다.

죄와 계명 준수를 잣대로 가늠하는 ‘율법주의’도 아니며, 심신의 위안과 자아실현을 위한 세속적인 봉사활동도 아닙니다. 신앙은 오로지 지식을 쌓는 곳만 쫓는 것도 아니며, 금방 어려움이 해결되리라 믿는 ‘미신’도 아닙니다.

“죽음도, 삶도 ....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 그 밖의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로마 8,38-39). 바로 하느님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당신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며,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본질은 “사랑 안에서서의 하느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느님과의 관계”라는 믿음의 탄탄한 기초가 없으면, 머리 속에서는 하느님을 찾으면서도, 마음 속에서는 인간적인 방법만을 찾게 될 뿐입니다. 우리는 이제껏 오랜 신앙생활 안에서 수많은 것들을 배우고 하느님에 대해 머리론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분의 가까이 계심이 느껴지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드 멜로(Anthony de Mello) 신부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과 함께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의 기도 안에서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하느님 사랑을 뜨겁게 체험했을 때, 우리의 절망의 때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의 나날이 될 것입니다. ☺